

COLUMN

극심한 AI 상황을 겪고 나서...



IIII 장규호 고문
(사)한국오리협회



가금업계 초유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AI가 다음주 쫘쫘식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생한 시기가 약 3개월 정도였었는데도 3년은 지난 것 같이느

껴질 정도로 가금업계 종사자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것은 베트남 등 아열대 지방에서 발생했던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동절기가 끝나갈 무렵인 철새가 월동을 끝내고 돌아갈 때쯤이면 끝나던 예년과는 달리 연중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상황에서 가금산업 전체가 줄도산할 뻔 했

던 경우인데 이런 사태가 연중 반복 된다고 보면 앞으로의 전망은 그저 운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 AI는 가금업계는 물론이고, 방역관련부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당황하고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1년에 몇 번씩 올지도 모를 AI때 마다 이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오리업계의 장래는 캄캄하다. 이번 AI를 겪으며 취한 관련업계의 대처방안에 대한 점수는 낙제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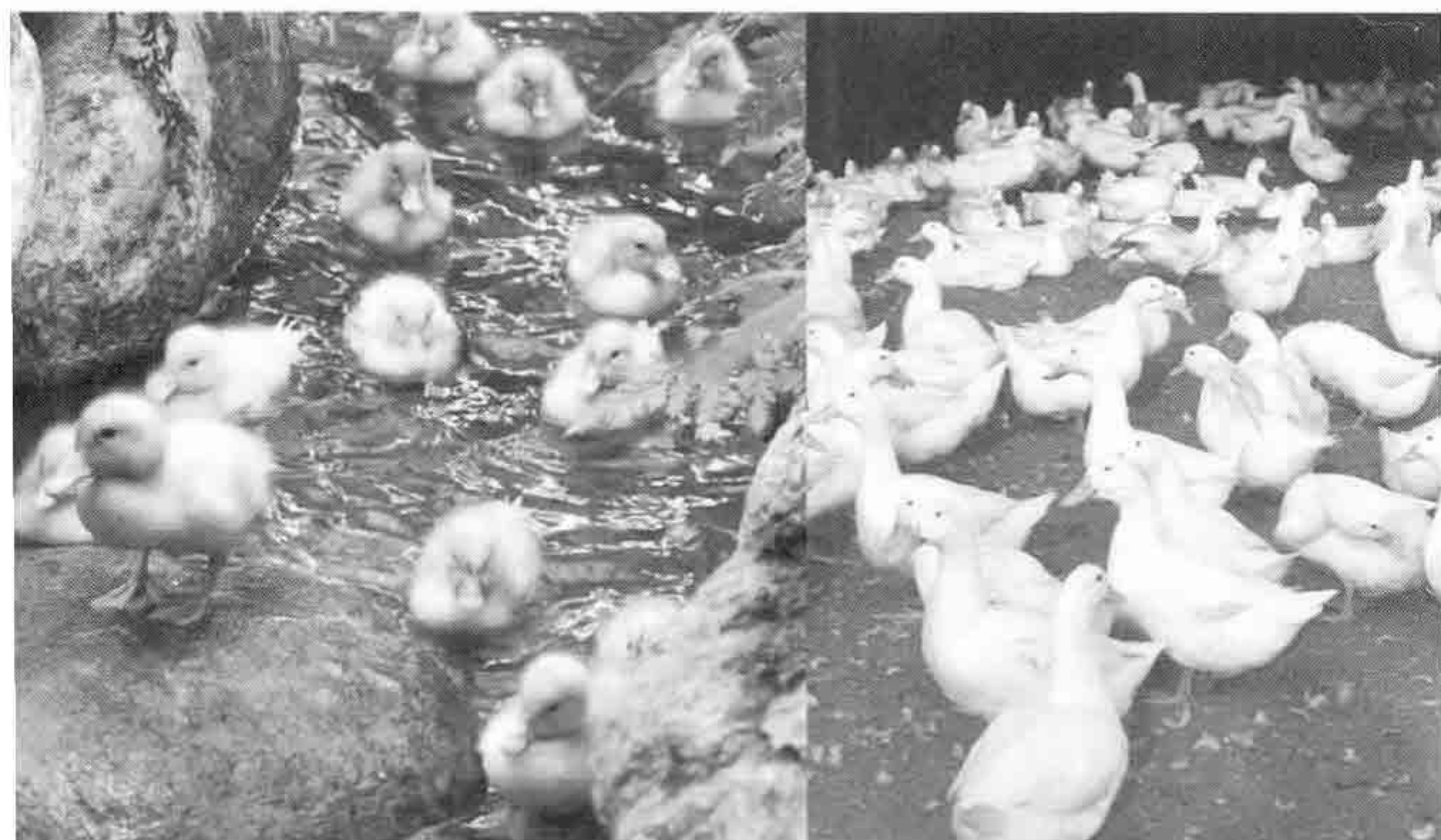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농가들은 이제 AI 방역기간이 끝나간다고 해이해진 분위기속에서 직격탄을 맞았었고 몇몇 유통업자들의 잘못된 관념으로 AI양성 반응판정이 난 가금류가 유통 되었으며, 방송에 초청된 일부 대학교수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을 혼란시켰으며, 또 이것을 근거삼아 마스크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다.

이걸 보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철저히 불협화음을 연출하기란 힘든 것인데, 이를 업계에서는 철저히 분석하여 반면 교사로 잘 활용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마스크의 편향된 보도태도이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각처에서 많은 발생신고가 이어져 마스크에서는 아예 AI를 단골메뉴로 삼았었고, 또 담당기자의 무지, 또는 영웅심리에 의해서 가금업계는 무차별 폭격 당한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다. 연못에 돌을 던지는 어린아이는 재미삼아 하는 일이지만, 그곳에 사는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한다는 것을 아는가? AI발생 이후 닭고기 소비는 90%이상 회복되었는데 반해 오리고기 소비는 아직도 겨우 50%를 못 넘고 있다.

이것은 편향된 마스크의 보도태도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금류 매몰 작업에 참여했다가 AI의심환자가 된 특전사 조상병 건도 MBC뉴스를 보니 오리사진을 클





로즈업 시켜놓고 그 뒤에 닭 사진은 조그맣게 그려 놔다. 이것은 예를 든 것이지만 여타 방송사도 대동소이이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오리를 악선전하고 있는 방송사들 (그 이후 조상병은 폐렴으로 판명이 났다)의 책임이 제일 크다.

둘째 정부당국(방역관련부서포함)의 태도이다.

AI가 발생해서 조기에 수습하느라고 애를 쓴 흔적은 도처에서 보이나 AI방역대책회의 등의 자료를 보면 아예 오리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AI발생의 원흉이 흡사 오리 때문인 것처럼 알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최초 발생은 닭 농장 이고 오리농장은 총 26건 중 5건이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 당정협약이 있을 때 AI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축산단체 측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 문건에 AI로 소비가 위축됐으니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지정한다는 말이 있었다. 아니 당시 소비가 오리 20%선이고, 닭 소비는 50%선이었었는데 밥상을 차렸으면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될 것을 숟가락 하나 놓기 싫어서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지정한다는 정책당국자의 발상은 너무 한심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오리를 수매했고,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오리수매도 예정되어 있는 물량 280톤을 초과하여 400톤에 이르렀고 닭은 1,000톤 예정에 960톤을 수매했다. 한 정책당국자의 발상으로 엄청난 국고낭비가 이루어진다면, 오리

업계를 차별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고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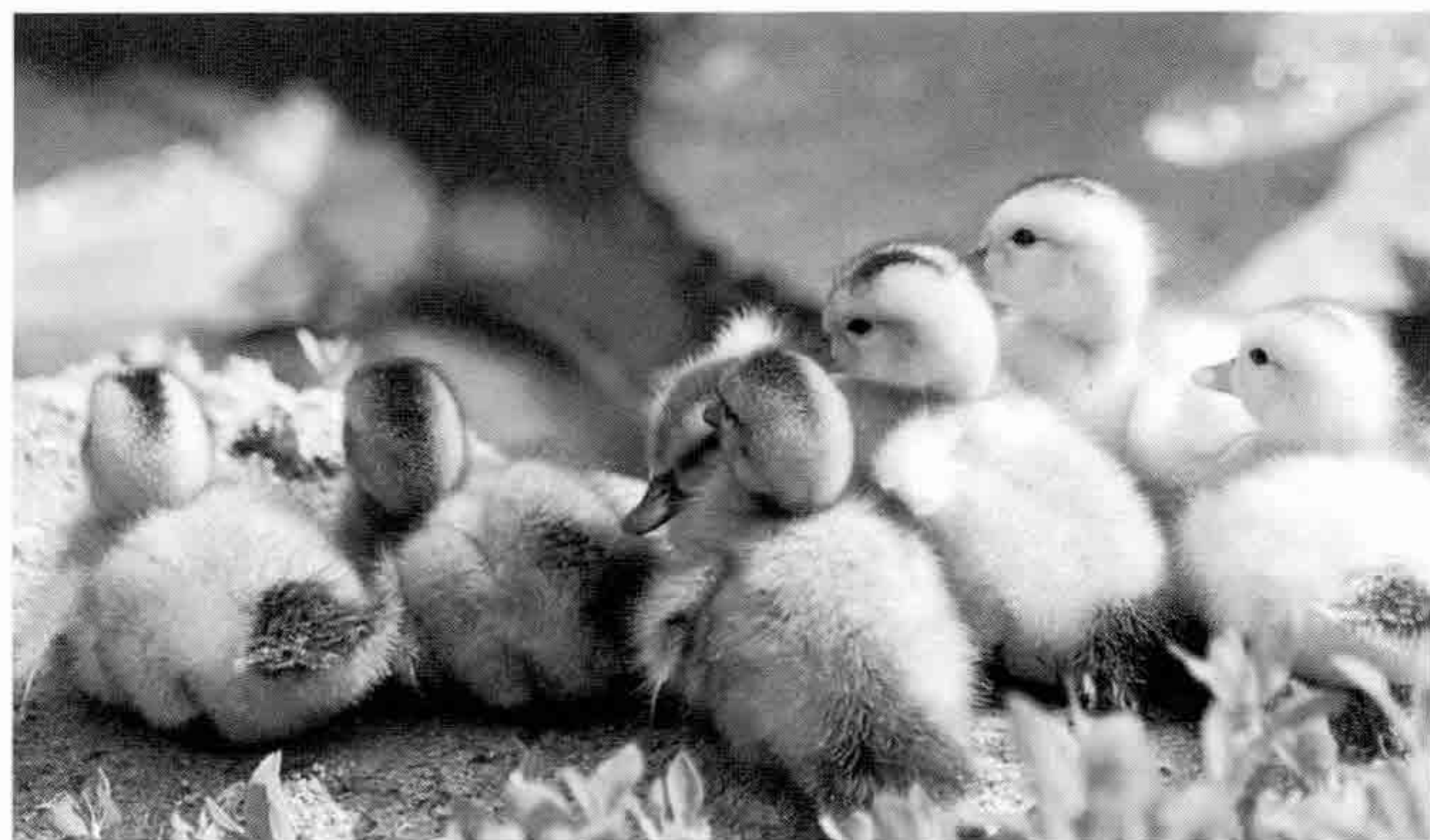
다시 말하지만 그 후 닭 소비는 거의 90%이상 회복되었고, 오리소비는 50%밖에 회복이 안 되었다. 이런 행동은 오리고기 소비가 대폭 줄어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세 번째 협회활동에 문제가 있다.

물론 협회 직원들은 열심히 했다. 그러나 넓은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 첫 번째, 두 번째에 열거한 문제 등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 적절한 어필을 해주어야 한다. 운동경기에서 감독의 중요한 순간에 어필 한 번이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단, 먼저 당정협의 때처럼 축산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 문건이 그 정도라면 협의를 한 장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오리협회도 설립한 지 18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경험자의 조언을 들을 줄 모른다. 단순한 경험자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정도로 협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상의도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오리협회 전통(?)대로 전임회장 및 원로 들을 예우하지 않는 풍조는 고쳐야 한다.

쓴 소리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특히 오리협회처럼 역사가 짧은 단체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쓴 소리를 한



다고 싫어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간 자기 발전의 기회를 없애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18년이면 이제 곧 성년이 될 나이 인데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번째 오리업계종사자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이번 AI를 겪으면서 이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그리고 협회로도 상당수의 민원이 급증했다. 심지어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한다. 그 중엔 협회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오리협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이천 및 여주지역의 10여 농가가 모여 분회를 결성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참에 아직 미가입된 오리업계 종사자들이 협회로 가입해, 힘을 모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무를 다하고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

AI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정부 또는 협회주도의 행사는 몇 번 있었지만 오리업계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행사는 드물었다. 이제 정부에서, 또는 협회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왔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오리고기 소비회복을 위한 전국적인 홍보행사를 제안해 본다. 대국민 홍보를 열심히 전개하여 오리고기 제품에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 소비자의 의식구조 변화 이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공익광고인데 “자궁경부암으로 하루 3명이 사망한다”.는 문구를 보면 이름도 잘 모르는 질병으로 1년이면 1,000명이 사망한다는 것인데, 3년여 동안 세계적으로 AI희생자가 130여명 정도라 하고 국내에서는 1명도 사망한 사실이 없다.

참고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스도 2003년 6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발병자 8,454명에 사망자 792명에 이르렀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매일 닭과 오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농장종사자들을 보라. 그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AI에 걸렸다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독감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단지 조류 질병이 사람한테도 변형되어 전파가 될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AI보다 훨씬 독한 독감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사육하는 조류에게로 전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간과하는가? 사람이 독감으로 1년에 수천, 수만명이 사망해도 그것은 뉴스가 안된다. 개가 사람을 문다 해도 뉴스화 되지 않는다. 사람이 개를 물었을 때 뉴스가 되는 것이다. 직업상 조그만 별 일도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여 확산에 성공한 방송사들과 아무 생각 없이 언론에 인터뷰한 인사들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혹이 되어 오리고기하면 혀를 내두르고 피했던 것이다.

이상 다섯가지 요인을 오리고기 소비가 50%정도 줄어든 이유로 생각을 해 보았다.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년도 오리생산액인 7,000억원 정도의 50% 손실인 3,500억원과 그동안 휴, 폐업한 오리 취급점 등에서 입은 피해 등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본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오리업계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물려야 한다. 그래야만 차후 이런 일

이 있을 경우라도 심사숙고해서 발언하고 방송하고 기사를 쓸 테니까...

